

예레미야애가 1 장

0. 애가서 각 장은 전부 몇 절로 되어 있는가? 왜 그럴까?

각 장은 한 편의 시이다. 1-4장은 답판체(각연의 첫 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하는 시작법)이므로 각장이 22연으로 되어 있다. 5장도 22연이긴 하나 답판체는 아니다. 3장이 66절인 것은 각 알파벳에 3절씩 배치되었기 때문이다(시 119편은 8절씩). 3행시처럼 22행시인 셈이다.

1. 우리말 '슬프다'는 말하는 화자(話者)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내가 슬프다는 말이다. 이것을 영어로는 *How deserted lies the city!* 라고 표현하는데 화자의 감정은 담겨 있지 않다. 그 도시가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한국인들은 1-2절에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처럼 느낀다. 실제로 여기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예레미야가 아니다. 누군가?

남편과 자식을 잃고 버림받은 가상의 여인(과부): 유다를 이런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슬픔은 2차적인 문제다. 복음송 중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이라는 가사도 이와 비슷하다. 누가 미치는가? 우리말로는 '내가' 미친 느낌이 강하지만 영어는 'crazy world'다. 세상이 미쳤으면 미쳤지 내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번역이 쉬운 게 아니다.

2. 예루살렘의 본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자(1-2).

본래 모습: 거민이 많았다. 열국 중에 크던 자, 공주 되었던 자,

현재 모습: 적막히 앉았다. 과부 같고, 조공 드리는 자.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3. 과부가 되고 종이 된 여인이 밤새도록 운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왜?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다의 멸망을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리고 위로 받을 길이 없는 불쌍한 과부의 처지에 빗대었다.

4. 어릴 때부터 죽자고 고생만 하다가 시집이라고 외국에 팔려갔다.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한 많은 인생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인가?

유다.

5. 도로가 처량하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없기 때문: 다들 잡혀가고 죽고... 처녀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아마도 잡혀가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었기 때문 아닐까? 4절 끝의 '저'는 시온이다!

6.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진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죄 때문에 대적이 머리가 되고 원수가 형통하게 된다.

7. 묵백(=군주)은 백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과 같은가?

팔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다(7): 대적에게 쫓겨 제 앞가림도 못하는 형국이다. 대적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방백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방백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큰소리치더라! 아마도 몰래 탈출했다가 잡혀온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8. 옛날의 화려함을 회상하는 것, 대적의 비웃음, 불결한 자가 땀(버려짐을 의미) 아랫것들이 비웃음(7-8), 예루살렘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꾸도 못하고 탄식하며 물러갈밖에 없다! 가장 끔찍한 것은 불결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욕이다.

9. 지금 당장의 치욕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라고는?

비명 같은 기도를 올릴 뿐이다(9).

10. 이방인이 주의 성소에 들어갔다(10)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뜻이다. 원래는 어떤 곳이 었길래?

제사장마저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던 곳이다. 이런 하나님의 처소가 언약의 자손도 아닌(=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유린당했으니 그 무엇이 온전하겠는가!

11.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죽을 판이니 보물이 무슨 소용인가(11)? 예루살렘이 언제 이런 꼴을 당했는가?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시집에 3년이나 포위당해 있었으니 양식이 완전히 떨어져서 보물이고 뭐고 간에 딱치는 대로 내어주고 양식을 구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12. 치욕에, 굶주림에 고통스럽기만 한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어봐야 무슨 소용인가(12)?

답답하면 아무라도 불렀고 무슨 소리라도 지껄여야 될 답답하다.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린다.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3. 유다가 당하는 고난을 잘 나타내는 말이 '불, 그물, 곤비'다(13). 불에 타고 말 위험에 처했지만, 그물에 걸려서 움작달작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다. 같은 내용을 14절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목에 멩에를 씌운 짐승: 내 힘으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죄악이 멩에가 되어 나를 꼼짝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죄를 지을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나를 얽어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즐겁기까지 했을 것이다.

14. 하나님께서 군사를 몰아(=성회를 모아) 유다를 치신다면 유다의 용사들은 있으나마나다. 용사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면 처녀들은 어떻게 되나?

포도주에 틀에 밟히는 포도송이처럼 되지(15): 포도를 열매 그대로 먹는 우리나라와 달리 포도주를 만드는 나라에서는 포도를 그대로 틀에 넣어 밟아 으깨어 버린다.

15. 이렇게 슬피 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16, 17, 21) = 나를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16.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가 모두 야곱의 대적이 된 것을 가리켜 왜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라고 하는가?

불결한 것은 불로 사르든지 깨부수든지 버리든지 하기 때문이다.

17. 온갖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다(렘 12:1) 그러니 그만큼 더 고통스럽다! 진작에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백성들이 진작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근심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18)

18.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가는 상황에서 '나를 속인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동맹국들, 특히 애굽: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으나 끝내 애굽 군대는 오지 않았다(렘 37:7).

19.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를 속였고 나의 자녀들을 사로잡혀 가버렸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20):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위로해 줄 자도 없고, 원수들은 이런 내 모습을 오히려 기뻐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소망이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을 찾는다. 진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20.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주께서 반포하신 날: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 날에는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같이 저희에게 행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애가 2 장

1. 1절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 몇 가지인가?

3가지:

1) **분노의 구름에 덮인 처녀:** 구름으로 덮으면 시원하잖아? 이게 어떻게 진노하신 결과일까? 이 구름은 더위와 햇빛을 가리는 보호용 구름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무서운 심판용 구름이다. 처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예쁘게 차려입은 처녀가 천둥치는 구름 밑에서 뭘 어찌겠는가?

2)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진 아름다운 것:**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나? 옥델메라는 말이 있었는데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못 생겼다'는 뜻이다.

3) **잊혀진 발등상:**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도구인데 솔로몬 왕의 발등상(족대)은 금으로 만들어졌다(대상 9:18).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차버렸나? 여기서 발등상은 언약궤 혹은 성전을 가리킨다(대상 28:2, 시 99:5, 132:7).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마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정도면(왕상 9:7)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셈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불행이다.

이런 고통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시의 형태에 신경 쓸 수 있었을까? 엄청난 고통이나 아픔을 시로 노래하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절제된 아픔일까?

2.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행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2-3)은 어디에 비유하는 것인가? 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거처를 삼키시고? = 불(3, 4절)

건고한 성을 혈어 땅에 얹으시고 = 지진?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어 = 힘 있는 짐승: 뿔이 잘린다는 것은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상징한다(신 33:17, 미 4:13).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지원 중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원 없이 이길 수도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손을 들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신다(4).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3. 눈에 아름다운 자를 살육하다니?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이라고 한 마디 한다면?

그럴 수가(죽임 당한 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오죽하면 그랬을까(심판자의 입장을 이해하면) 언젠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남편에게 수년간 설탕물만 준 부인이 있었다. 뼈다귀만 남은 모습의 남편을 보고서 사람들이 '독한 여자'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20여년이 넘도록 남편에게 맞으면서 살았던 여인의 형편을 알고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더라.

4. 말짱한 정신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까(6-7)?

자신을 죽이는 일: 성막을 허는 것, 공회 처소를 훼파하는 것,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는 것(6), 자기 재단을 버리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는 것, 원수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환화하게 하는 것(7) 등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5. 성을 혈기로 결심하셨는데 줄을 띠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분명한 계획을 따라서 일을 추진한다는 뜻: 줄을 띠는 것은 끈물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끈물이 온전한지 아닌지 따져서 부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왕하 21:13).

6. 땅에 묻힌 성문, 퍼어진 빗장, 열방 가운데 흩어진 왕과 방백들, 목시를 받지 못하는 선지자들(9), 땅에 앉아 잠잠한 장로들(10)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아무 소용이 없다. 답답하고 허무하고 안타깝고 속이 터질 일이다. 여기에 비하면 '양꼬없는 쩐빵', '고무줄 없는 팬티'는 호사다.

7. 어린 자녀와 젓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한 이유가 무엇일까?

굶어서: 집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집을 나와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죽는다. 더 어린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서 울다가 죽는다. 뭐라고 하면서 울었을까? 젓 달라고 울지 않았을까?

8.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12)은 갓난아기가 굶어죽으면서 하는 말인데 번역을 야기말에 어울리게 해야지, 참 나!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엄마 밥, 엄마 물' 이러면서 죽어갈 것이다. 이런 판국인데도 왕, 선지, 장로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9. 이스라엘이 당한 비극(1-12)은 비극 중의 비극이다. 바다만큼이나 큰 비극을 당하면서도 더욱 절망적인 것은 어떤 점인가?

이런 비극을 풀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13c)?

10. 선지자가 파괴된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비유, 혹은 무엇에 비교하는가(13)?

비교(비유)할 대상이 없다: 파괴됨이 너무나 커서 그 무엇과 비교,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말이

다. 파괴됨이(상처가) 바다갈다는 것은 크기나 흉용함을 말하는 것이다. 비슷한 예를 든다면 노아 때 세상에 임한 심판을 홍수라고 하는데 말이 홍수지 실재는 홍수가 아니다. 홍수라는 말은 너무 약한 표현이다. 온 세상을 뒤집어엎는 대재앙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할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홍수라고 한다. 그 심판을 홍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것은 아니다.

11.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괴되도록 한 선지자들이 자신이 본 것을 말했으니(14)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영동한 것을 본 탓이다: 헛되고 어리석은 목시를 보았고 거짓 경고와 미혹케 할 것만 보았다. 굳이 죄라면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운 죄다. 누가 그런 것을 보여주었는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혹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그래서 거짓된 메시지가 보이는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미혹된 자신의 잘못이다.

12.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입을 벌려 웃으며 박장하며 비소(비웃음)하면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플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잖아? 예컨대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지만 매를 드는 아버지가 매 맞는 아들보다 더 아픈 것과 같은 이치다. 이스라엘이 멸시를 당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한다. 다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삼하 1:20).

13. 성도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 명색이 성도 아닌 말이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다른 성이 파괴되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 왜?

한 때 '온전한 영광, 천하의 희락'이라 불리던 성이기 때문이다. 거지가 자빠지는 것이야 별로 부끄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요조숙녀가 엮어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14. 여호와께서 다 이룬 '이미 정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 미리 말씀하셨다(레 26:1-45, 신 28:15-68). 범죄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휘파하사 원수로 즐거워하게 하며 대적의 뿔로 높이 돌리게 하셨다.

15. 18-19절을 요약하면 '쉬지 말고 밤낮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진작에 그러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기 전에 그래야지 다 무너진 후에 그러면 어떡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16. 여인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나,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비극의 극치다. 이제 어떡해? 하나님께 할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20)?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살펴봐 달라는 것이다. 못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17.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간 장본인은 바벨론이다.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본문 어디에 있는가?

전혀 없다: 외형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지만 진짜(내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탓이다.

예레미야애가 3 장

[1-18: 여호와와의 징계]

1.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선지자는 왜 '자기'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가(1-18)?

민족의 고난이 곧 자기 개인의 고난과 동일하다: 민족의 아픔이 곧 자기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픔이 곧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다. 민족이 아픈데 나 혼자 즐거울 수 있는가? 교회가 아픈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아니다.

2.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누가 그랬다고 하는가?

여호와(1): 바벨론은 노하신 여호와와 매일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할 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성도를 두렵게 한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자에게는 회복의 희망이 있다.

3. 여호와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아픈가? 1-18에서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각자 다를 수 있음)

예컨대,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어두운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활을 당기고 나로 과녁을 삼으심이어(12): 조준사격인 썸인데...?

4.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실 때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시 23)'라고 노래하지만 그 분이 심판하실 때에는 초장이 어떻게 변하는가(2)?

흑암으로: 푸른 초장이 번영과 배부름을 의미한다면 흑암은 재난과 굶주림이다. 여기서 '이끌어'라는 말은 짐승을 몰고 갈 때 쓰는 말이지 사람을 인도할 때는 쓰이는 말이 아니다. 결국 '흑암으로 이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짐승처럼 몰고 가서 도살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5.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쓸 것, 마실 물을 주셨다. 은혜를 베푸실 때는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되나?

자주 자주 치신다: 한번 혼냈으면 됐지? 그러지 말라! 끝없이 은혜를 받아 놓고 화가 나면 한 번만 (자주 자주) 야단치고 말라고? 은혜 베풀 때 정신 차려야지!

6. 천이 낡아 찢어지듯이 살과 가죽이 낡아지면? 뼈가 꺾이면 어떻게 되나?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 살과 가죽이 없으면 뼈에 극심한 고통이 가해진다. 거기다가 부러지기까지 하면... 먹지 못하고 병이 들어 쇠약한데다 뼈까지 부러질 정도면 엄청난 고통을 겪겠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먹을 것이라고는 '담즙' 뿐이고 할 일이란 게 '수고' 뿐이다(5). 그러면 죽은 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6).

7. 하나님의 매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7-17절을 보기와 같이 요약해 보라.

[보기] (7)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감금

(8)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버림

(9)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좁게 하셨도다: 방해(다듬은 돌로 쌓으면 허물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10)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리어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노립

(11)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조력자 제거

(12-13) 활을 당기고 나로 과녁을 삼으심이어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조준사격

(14)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릇거리가 되었도다: 창피

(15)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속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고통(배고픈데 쓴 속으로 배를 채우면 어떻게 되나?)

(16) 조약궤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돌에 이빨이 찍히고 재를 뒤집어 씹(어떤 경우일까? 대적이 발로 짓밟는 바람에? 아니면 흙구멍에 떨어진 먹을 것을 입으로 물다가?)

(17)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 버렸음이며: 마음의 고통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절망

8. 이런 하나님의 매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짐(18):

[19-39: 은혜에 대한 소망과 위로]

9.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선지자는 어디서 희망을 발견하는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에서(22): 긍휼은 자비의 결과적 산물이다. 매 맞은 흔적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20)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여호와께서 자비하심으로, 성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23)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다. 그렇게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말이다.

10.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24)? '기업'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모든 것(He's everything to me = 어느 복음송 가사): 수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필요충분조건'이다. 우리

말의 기업은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본래는 '분배되어야 할 몫'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셈이다. 그러니 진정으로 기다리고(25) 바라야 할 것(24)은 하나님이다.

11. 번역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본문이 지닌 시적 미감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25-27 세 구절의 원문은 동일하게 '종도다(=히, 토브)'라는 말로 시작한다. 우리말로도 그렇게 시도해보자. <종도다(종으시도다), ...>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 보자.

(25절) 종으시도다 여호와와!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26절) 종도다,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27절) 종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멩에를 매는 것이!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선지자가 여기서는 이렇게 좋아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 시적인 표현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여호와와의 자비와 긍휼에서 이런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12. 성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때가 있다(출 14:14, 히 12:9). 가슴이 터져 나갈 것만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주님을 신뢰함으로(26, 28, 31-33) 불평, 원망,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다.

13. 왜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라고 하는가(29)?

땅바닥같이 낮아져서 기다리라는 말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야단을 치셔도, 혹 잘못 야단을 치셔도 일단은 참고 들어야 하는 법이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멩에를 매게 하셨다면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겠는가?

14. '때리거든 맞고, 욕을 하거든 들으라(30)!'고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누가 때리든, 누가 욕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시기 때문이다(33). 우리가 잘못하여 이런 고난이 왔을지라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풍부한 자비대로 갚아주실 것(32)이기 때문이다.

15.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본심과 다른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관한 자를 밧로 밧는 것(34), 재판을 굽게 하는 것(35),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36) 때문이다 (= 자기 죄 때문이다, 39절). 이런 것들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어디 한 번 두 번 안 들어야 말이지...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에 깨끗이 망하기까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 편케 하지 않았다. 여호수아 때만 잠시 빼고...

16. 화든, 복이든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수 있겠느냐(37-38)?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

원망 없이 순종해야지(39, 롬 8:28, 벧전 2:19, 20)!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분을 신뢰하는 것이 이런 고난에 대한 예방책이기도 하고 치료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나의 기업이다(24).

[40-51: 회개를 권고함]

17.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필연적인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나간 탕자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서 종이래도 종으니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결국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18.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버리셨던 하나님(42-45): 기도를 들지 않으실 뿐 아니라 쫓아와서 살육하시기도 하셨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을지라도 그 분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는 증거다.

19. 모든 대적이 우리를 비웃고(46) 온갖 고통으로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48-49). 절망하고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릴까(욘 2:9)? 선지자의 권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린다(50):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기다리라는 것이 본 장의 핵심 메시지이다.

군축(窘逐): 뒤쫓다

진개(塵芥): 쓰레기나 오물

폐물(廢物): 경멸의 대상

20.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에 선지자가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51)'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들이 당하는 치욕을 보는 고통 때문이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남자가 불쌍할까, 여자가 불쌍할까? 죽고 다치기야 남자들이 많이 죽고 다치겠지만 죽지는 않더라도 치욕을 당하기는 여자들이 더 심각하다.

[52-66: 구원 요청과 응답에 대한 확신]

21.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처럼 쫓기는 자, 대적자에게 사로잡혀 구멍이 던져진 자, 물이 머리 위로 넘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죽었구나(=멸절되었다, 54) 도무지 희망이 없을 정도로 대적에게 쫓기는 장면이다. 정상적이
라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2.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55)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믿음 외에 진정으로 성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성도가 절대로 낙망할 수 없는 이유이다.

23. 개역 성경의 표현이 옛날식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 부분에는 특히 더
그렇다. 다음 구절의 밑줄친 부분을 좀 쉬운 표현으로 고쳐보자.

(58)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떠(3자)셨고 내 생명을 속(1자, 2자)하셨나이다

(59)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3자)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9자)옵소서

(60)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11자)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61)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휘파(2자)하며 나를 모해하(9자)는 것

(62)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63)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2자)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64)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옵하사 (65) 그 마음을 강박하(4자)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66)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4자)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58)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떠(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구, 구원)하셨나이다

(59)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돌아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
서

(60)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원수 갚겠다고 덤비는 것과)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61)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휘파(모욕)하며 나를 모해하(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62)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63)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비웃)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64)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옵하사 (65) 그 마음을 강박하(고집스럽)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66)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쫓아가서)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24. 원수에게 이렇게 깊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어
울리지 않는 일 아닌가?

원수 갚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것이다. 절망 속에서 이런
희망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니 쓰러지지 말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기대이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갚아주실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
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원수(사탄)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원수는 사실상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애가 4 장

[1-10: 기근으로 인한 참상]

1. 기근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성소 길거리에 버려진 돌(1)
 정금 토기장이의 질항아리(2)
 처녀 광야의 타조(3)
 붉은 옷을 입고 진수를 먹던 자 거름더미를 헤집는 거지(5)
 마광한 청옥 솟과 막대기(8)
 자비한 부녀 식인종(10).
2. 금이 빛을 잃고 변하면 무엇처럼 되는가?
토기장이의 만든 질항아리: 항아리면 쓸모가 있지, 빛을 잃어버린 금은 전혀 쓸모없는 항아리 조각이나 마찬가지로. 금이 값이 나가는 이유는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3. 제자리에 있는 성소의 돌과 각 거리 머리(모퉁이)에 쏟아진 성소의 돌이 어떻게 다른가?
 제자리에 있어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길모퉁이 버려진 돌은 치워야 할 장애물이다. 마치 논 가운데 피어난 장미처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항아리 조각이나 길거리의 장애물처럼 버려졌다.
4. 본문이 말하는 들개와 광야의 타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들개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만 타조는 새끼를 먹이지 않는다: 혹독한 기근이 닥치자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들개보다 못하다. 광야의 타조는 알을 낳고는 잊어버린 단다. 아예 새끼를 돌볼 생각도 않는 타조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젖먹이나 어린 아이에게 떡 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다.
5. 붉은 옷을 입고 진수를(=진수성찬을) 먹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거리에서 거름더미를 헤집는 거지: 전에 같으면 거름더미보지도 않던 것을 이제는 찾아 먹어야 한다.
6. 아무려면 유다의 죄가 소돔보다 더 하려고?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악했다는 말이고 예루살렘이 소돔처럼 무너졌다는 뜻이다.
7. 미인의 조건은 희어야 할 부분은 희고 붉어야 할 부분은 붉어야 하는 것이다. 유다가 한 때는 그랬다(8).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희어야 할 부분은 검고, 붉어야 할 부분은 막대기같이 말랐다. 그래서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8. '칼에 죽은 자'(9a)와 '칼에) 찢림'(9b)의 의미상 차이는 무엇인가?
 칼에 죽은 자는 단번에 죽은 자를 말하고 '칼에) 찢림'은 부상을 입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과 굶주려서 죽는 것이 단칼에 죽는 것보다 더 불행할 정도로 혹독한 굶주림을 겪었다.
9. 왜 하필이면 자비한(동정심이 많은)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비한 부녀라면 절대로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11-16: 지도자들 의 죄]

10. 이 단락에서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을 수 없었던 일이다. 난공불락의 요새로만 알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 어떻게 대적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유다의 자만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유다의 범죄가 얼마나 컸겠는가!
11. '여호와께서...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예루살렘이 불태워진 것: 왕하 25:9)여호와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 예루살렘이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는 것은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징계를 당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부정하여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음: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던 제사장들이 마치 문동병 자처럼 부정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징계이다. 이들이 옷에 피를 묻힌 채 소경처럼 방황한다. 지도자가 소경이 되었으니 뻔한 결과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피한다. 아무도 높이거나 대접치 아니한다. 16절의 '저희'는 이방인이다.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들을

누가 높이겠는가! (16절의 끝 부분은 '아니 하였고다'로)

[17-22: 백성들의 헛된 소망]

13. '우리가 눈이 상하도록 바라보았던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애굽(렘 2:18, 36, 37:7-10):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사야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사 30:3-7, 31:1-3)고 소리를 높였지만 유다는 애굽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의지할 것은 애굽도 바벨론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결국 선지자들의 외침도 소용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일까, 돈일까? 하나님 우선이어야 가진 돈도 돈이지, 하나님 없이 돈만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고 돈 벌 생각도 않거나 살기 위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14. 우리를 엿보는 자들이 거리를 지키고 있고(18a), 산꼭대기로 도망을 가려니 독수리같이 쫓아오고 광야로 가려니 매복하고 있다(19).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끝났지!(18b):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니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15. 함정에 빠진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구인가? 한 때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인데?

유다의 왕: 도망갈 곳도 없는데다 한 때 믿었던 왕마저 함정에 빠졌으니 완전히 끝이다. 왕을 가리켜 우리의 콧김, 즉 호흡만큼이나 중요한 분이었는데 도망치다가 잡혔으니... (왕하 25:5)

16. 처녀 예돔이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잔이 주어질 것이니: 잔을 부어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으리라는 것은 일면 기분 좋은 것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치를 당할 것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 22절의 표현을 보면 형벌에 대한 의미이다. 처녀가 벌거벗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잔은 진노의 잔이며 기뻐하라는 것은 일종의 조롱이다.

17. 처녀 예돔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 처녀 시온은 어떻게 되나?

먼저 수치를 당하였으나 형벌이 끝났다: 유다에게 대적하거나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지만 시온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예레미야애가 5 장

1. 5장의 내용을 셋으로 구분한다면 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당한 것', '우리의 수욕'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강 이렇게 구분해 보자.

우리의 당한 것: 2-8절, 신분의 추락

우리의 수욕: 9-18절, 신분이 추락한 결과 비참해진 현실

하나님의 감찰: 19-22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현실을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다.

(2-16) 다음 구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슴 아픈 일인지 설명해 보자(일반적으로 슬픈 이유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2.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2절):

원래 기업은 '물려받은 재산(유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외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설령 팔렸다 해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외인에게 (영원히) 빼앗겨 버렸다. 나뭇이 왕에게도 팔지 않으려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기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여호수아 시대에 차지했던 땅인데 이제 다 잃어버렸다.

3.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3절):

성경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고아와 과부다. 과부라 해도 혼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남편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다.

4.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쉼을 얻으오며(4절, 물과 쉼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물과 우리의 쉼이다):

우리 물을 마시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하다니! 이전에는 결코 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인데 값을 내야 하다니! 이민족의 혹독한 수탈로 인한 고통이다.

5.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5절):

목이 눌렸다는 것은 멍에를 매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 그들에게(출 32:9, 렘 2:20) 이방인이 멍에를 씌우는 바람에 곤비하여 쉴 수가 없다(신 28:48).

6.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6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사람이든 앗수르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는 말이다. 이방인을 불결하게 생각하던 거룩한 백성들의 꼴이 말이 아니다.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서 여관을 관리했는데 미치겠더라! 아이들이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잔소리를 하던 분이 여관에서 막무가내로 설치는 손님들을 상대하려니 정말 때려치우고 싶더라.

7.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7절):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열조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영터리같이 살았던 조상들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지 않았을 것이다.

8. 종들이 우리를 관할함이며 그 손에서 견져낼 자가 없나이다(8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바벨론의 하급관리다. 이들이 무슨 법을 따져가며 돌보아주지 않는다.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도 무서워했던 것은 일본 순사였다. 자기 나라에서는 말단 순사일 텐데 이것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빌빌거리다니...

9.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9절):

광야에 웬 칼? 도적이냐 강도들이 날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칼을 뜻하는 단어(헤레브)는 가뭄의 뜻도 있다. 이러나저러나 양식을 구하기에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10.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10절):

굶어서 쭈글쭈글할 뿐 아니라 시커멓게 변한 피부가 검댕이 늘어붙은 아궁이 같다. '주림의 열기'란 말은 어딘가 어색하다. 주림은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인데 열기는 강하고 뜨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굶주림 때문에 우리의 피부가 열기가 가해진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는 표현이다.

11.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옥보였나이다(11절):

전쟁이 나면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미리 경고되었다(신 28:30). 하나님에게 순결하지 못한 자는 육체의 순결도 보장할 수 없다.

12. 방백들의 손이 매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12절):

외적에게 항복하고 나면 방백이나 장로들은 일반백성들보다 더 모진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언급된 고문이나 수모를 말하는 것 같다.

13. 소년들이 멧돌을 지오며 아이들이 쉼(나뭇짐)을 지다가 엎드러지오며(13절):

소년이란 긴장한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젊은이가 기껏해야 멧돌질이나 하게 된다. 나뭇

짐을 나르다가 쓰러지는 아이들은 옛날 가난하고 고생스럽던 시절을 회상케 한다.

14.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14절):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재판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일이 다 사라져 버렸다. 정당한 재판이 사라져 버렸으니 노래할 일도 없다(15).

15.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16절):

면류관은 왕관을 뜻하지만 축재나 즐거운 잔치에서 쓰기도 했다.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비극이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 현실의 아픔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이다.

16. 이렇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렇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17절)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18절):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 버림을 당하였고, 짐승이 번성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고 야생 동물들의 번성하는 것은 가장 비참함을 의미한다(사 34:8-17).

(17-20) 다음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희망이 되는지 설명해 보자.

17.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19절):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아름다움도, 심지어 혹독함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살아남은 자의 것이다.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최후의 승리자이시다.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 이시니 결국에는 우리를 구할 것이다.

18.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20):

고난이 오래 계속되는 것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기대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원어상으로는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고,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미완료 시제).

19.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21):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저버리지 않았다. 그냥 주께로 돌아가면 되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게 무슨 뜻인가?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셔야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이해이다.

20.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22):

아주 버렸는데 기도는 왜 하나?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도 또 한편으로는 투정을 부리는 셈이다. 좋아서 하는 짓이면서도 때로는 힘들다는 엄살을 떤다. 좀 봐달라는 뜻이기도 하다.